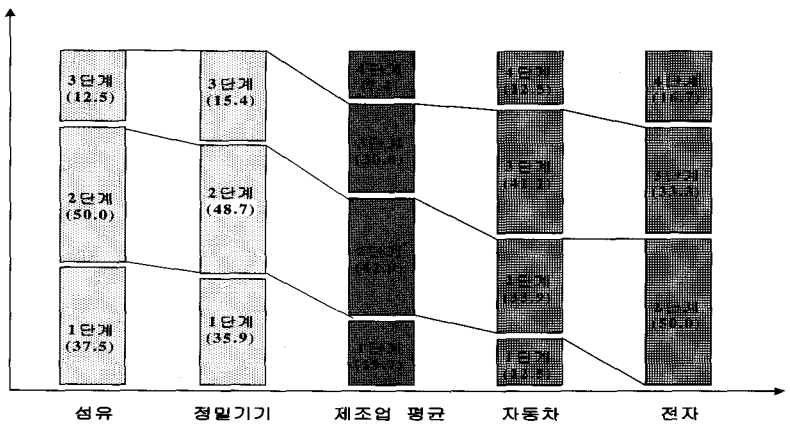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정보화 - 이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

산업자원부 제공

□ 산업자원부(長官 辛國煥)가 산업연구원(원장 배광선)에 의뢰해 조사한 "국내 중소 제조업 정보화 수준평가" 결과, **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**되고 있으나, **업종별 특성, Supply Chain내에서의 위치, 해당기업의 경영전략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정보화 추진은 미흡**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
□ 우선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지난 2월1일 발표한 '산업별 e-비즈니스 수준'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

○ 정보화 수준을 1단계(개인별 자료처리 수준), 2단계(단위 업무의 정보화 수준), 3단계(업무 전체의 통합 정보화 수준) 및 4단계(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등 전략적 활용)로 구분했을 때, **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**이 타 업종(기계, 섬유 등)에 비해 **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**



낮음 ← 정보화 수준 → 높음

□ 한편, 정보화에 따른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**업무결산 속도향상, 고객응답속도 향상, 의사결정시간 단축 및 경영투명성 향상에 큰 효과**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**제품개발기간 단축, 1인당 생산성 향상, 재고감소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**

- ㅇ 특히, 정보화 효과와 업종과의 상관분석에서는 각 업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,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보화의 전략적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
- ㅇ 즉,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업종의 경우 재고감소 및 제품개발기간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이고, 섬유는 고객응답속도 및 제품개발기간 단축에 정보화가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이같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추진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
- ㅇ 이같은 분석결과는 **중소기업들이 정보화의 목적을 일반적인 경영효율 개선에 두고 있음을 시사**하는 것임

□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"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"의 지원업체가 **1월말 현재 18,000개**를 넘어서는 등, 당초 목표('01:8,000개 '02년 10,000개)를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을 통해 IT화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효과적인 도구라는 인식은 충분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,

- ㅇ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은 **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, Supply Chain내의 위치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**하고, **정보화가 경영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임**
- ㅇ 이를 위해 현재 지원중인 '**대기업-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**'**의 업종별 성공모델을 조기에 구축**하는 한편, **정보화와 프로세스 ·조직 혁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**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